



파스와 산골(自然銅)요법

박 지 우
(경기 : 해동 한약방)

• 序 論

파스와 산골요법은 본인이 펴낸 四象體質診斷法 (행림출판사발행)에 이미 소개된바 있으나 많은 분들이 그 시술법과 효능에 대하여 전화문의가 있어 본지를 통하여 좀더 상세하게 시술법을 소개한다.

• 本 論

이 요법의 원리는, 파스는 인체의 경혈에 붙이면 그 혈의 기를 補(기를 강화시킴)하는 작용이 있고 산골은 경혈에 붙이면 그 혈의 기를 瀉(기를 억제함)하는 작용이 있어 보해야 할 혈과 사해야 할 혈을 선택하여 붙여 보아 그사람의 체질을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이미 사상체질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할 수도 있다.

1. 補瀉穴의 선택

보할 혈과 사할 혈을 결정하자면 우선 사상체질별 장부허실을 알아야 한다.

〈사상체질별 장부허실〉

- 태양인 : 간(담) 허 대장(폐) 실
- 태음인 : 대장(폐) 허 간(담) 실
- 소양인 : 신(방광)허 위(비)실
- 소음인 : 위(비)허 신(방광)실

그러므로 각 체질별로 여러가지 처방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시술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는 처방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가 있는데 이를 체질기본방이라 한다.

- 태양인 : 간 보
- 태음인 : 대장 보

· 소양인 : 신 보

· 소음인 : 위 보

즉, 태양인은 간을 보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간보하여 부작용이 나면 태양인 아님.

태음인은 대장 보하면 반드시 효과있다. 대장보하여 부작용나면 태음인 아님.

소양인은 신을 보하면 반드시 효과있다. 신보하여 부작용나면 소양인 아니다.

소음인은 위를 보하면 반드시 효과있다. 위보하여 부작용나면 소음인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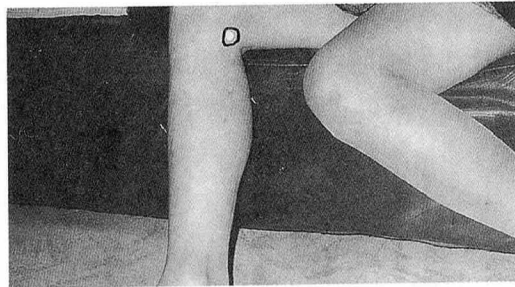
2. 시술방법

① 태양인 간보

파스만 사용하면 곡천혈에 파스를 붙인다.

파스와 산골을 사용하면 음곡 곡천에 파스 붙이고 경거 중봉에 산골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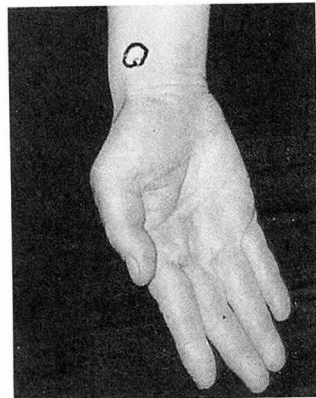
- 태양인 - 폐 대장 기능 강, 간담 기능 약



곡천(曲泉)혈에 파스를 붙인다.
(간 기능이 강화된다)

- 태양인 -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음곡(陰曲) 곡천(曲泉)에 보(파스 붙인다) 경거(經渠) 중봉(中封)에 사(산골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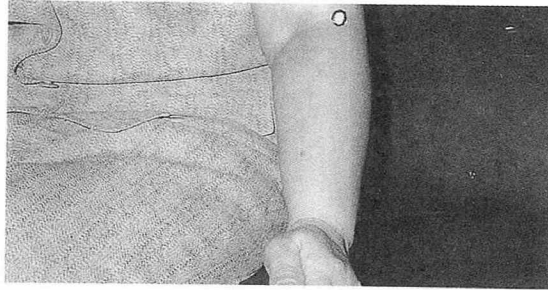


□ 학 술

② 태음인 대장보

파스만 사용하면 곡지혈에 파스를 붙인다. 파스와 산골을 사용하면 삼리 곡지에 파스를 붙이고 양계 양곡에 산골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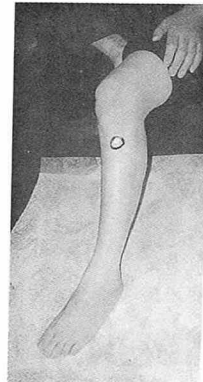
- 태음인 - 폐 대장 기능 약, 간담 기능 강



곡지(曲池)혈에 파스를 붙인다.
(대장 기능이 강화된다)

- 태음인 - 대장기능을 강화시킨다.

삼리(三里)곡지(曲池)에 보(파스붙인다) 양계(陽谿) 양곡(陽谷)에 사(산골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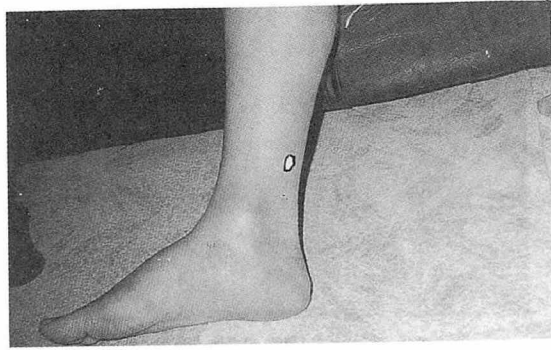


③ 소양인 신보

파스만 사용하면 복류혈에 파스를붙인다.

파스와 산골을 사용하면 경거 복류에 파스붙이고 태백 태계에 산골을 붙인다.

- 소양인 - 비위 기능 강, 신 방광 기능 약



복류(復溜)혈에 파스를 붙인다.
(신 기능이 강화된다)

• 소양인

신 기능을 강화시킨다.

경거(經渠) 복류(腹溜)에 보(파스붙인다)

태백(太白) 태계(太谿) 사(산골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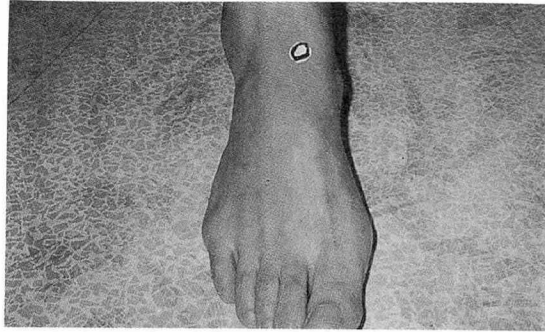
④ 소음인 위보

파스만 사용하면 해계혈에 파스 붙인다.

파스와 산골을 사용하면 양곡 해계에 파스 붙이고 임읍 함곡에 산골 붙인다.

• 소음인

비위 기능 약, 신 방광 기능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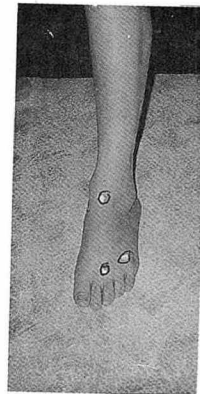
해계(解谿)혈에 파스를 붙인다.
(위 기능이 강화된다)

• 소음인

위 기능을 강화시킨다.

양곡(陽谷) 해계(解谿)에 보(파스붙인다)

임읍(臨泣) 함곡(陷谷)에 사(산골붙인다)



3. 파스와 산골은 어떻게 붙이나?

파스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파는 끈적끈적하지 않고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는 일반 파스(신신파스가 사용하기 좋다)를 조그맣게 잘라(가로 세로 각 5mm정도) 경혈에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약국에서 파는 종이 반창고로 덧씌워 고정시킨다.

산골은 모래알처럼 부서진 것이 효과가 좋으며(큰 덩어리로 된 산골은 효과가 적다) 법제하지 않은 자연산 그대로의 산골 모래를 녹두알 정도의 분량을 종이 반창고에 싸서 경혈에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종이 반창고를 덧씌워 고정시킨다.

치료목적으로 붙여두지 않고 검사만 하기 위해 경혈에 접촉만 시켜 볼 때는 콩알 만큼의 분량을 비니루에 싸거나 유리병에 넣어서 사용해도 된다.

산골은 한번 붙이면 영구히 지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파스는 이틀정도만 지나면 효력이 떨어지므로 이틀에 한번씩 갈아 붙여야 한다.

4. 효과와 부작용

체질 진단이 정확하여 맞는 혈에 시술하면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산뜻하고 시원해지며 어디가 아프든 통증이 완화되거나 소실된다.

그러나 체질진단이 틀려서 그사람의 체질에 맞지않는 혈에 붙였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는데 눈이 흐려지고 아물거리고 눈까풀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고 기분이 불쾌하고 통증은 더 심해지며 몸이 무거워 진다.

이와같은 부작용이 나면 체질진단이 틀린 것이므로 즉시 떼고 체질진단을 정확히 하여 다른 혈에 시술을 하면 부작용은 해소되고 통증도 없어져서 치료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파스와 산골을 붙였을 때 경락반응이 민감한 사람은 빠르게는 10초에서 1분안에 반응이 오지만 몇 분동안을 붙여 두어도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사람도 30%정도나 되기 때문에 체질진단이 어려울 때도 있으나 이런 사람도 하루정도 붙여두면 건강이 호전되거나 부작용이 나므로 다른 여러가지 진단법을 사용하여 체질판별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요법은 침시술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침을 시술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치료법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사상의학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기본방이 아닌 여러가지 부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1)태양인

① 기본방 : 간 보

② 부방 : 대장 사, 폐 사, 담 보

2) 태음인

① 기본방 : 대장 보

② 부방 : 간 사, 담 사, 폐 보

3) 소양인

① 기본방 : 신 보

② 부방 : 위 사, 비 사, 방광 보

4) 소음인

□ 학 술

- ① 기본방 : 위 보
- ② 부방 : 신 사, 방광 사, 비 보

위와 같이 부방을 활용하면 팔상체질도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

기본방은 부작용이 없고 언제나 효과를 보지만 부방은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면 즉시 기본방으로 갈아 붙여야 한다.

좀더 깊은 연구를 하실 분들은 사암선생(舍岩先生)의 오행침술(五行針術)을 공부하시기 바란다.

「저서」

오행침 사상의학해설 (1987년 1월 - 체질의학 연구회)

사상체질 진단법 (1996년 2월 - 행림출판사)

五運과 六氣는 天地間의 모든것의 법칙이며 만물의 綱紀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生殺을 결정하는 大本이며 그 모든 자연을 주재하는 창조주의 靈妙한 本據이다.

※ 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變化五交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 黃帝內經 -